



곡성 문화



2018년(단기4351년) 12월 30일 / 12호

발행인 곡성문화원장 고광운 편집인 곡성문화원 팀장 배숙영 Tel.061-362-0890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2018년 무술년 한 해를 보내면서
사자성어는 임중도원任重道遠입니다.
책임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입니다.
한반도 동포형제의 염원인 평화통일 구상과
정치·경제·사회·문화혁신의 중대한 기로에서
다시는 혼돈의 시대를 겪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국민들의 단호한 결의와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한 소망이 담겨있습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대한민국 금수강산에 평등·공정·정의를 실현되고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땅에
나누며 즐기는 문화복지 누리바람 불어와
군민행복지수 1위의 향연축제饗宴祝祭 풍성하길 기원합니다.

축원/곡성문화원 가족 모두





삼강오륜의 현대적 가치와 효경칭찬생활문화 운동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사회, 살기 좋은 국가를 위하여!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인간은 '우리' 라고 하는 '사회' 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불신풍조가 만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믿음과 의리로 맺어진 행복한 인간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나 **삼강오륜**의 하나인 **붕우유신(朋友有信)의 기본윤리**에 대하여 재조명(再照明)해 보고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붕우유신(朋友有信)은 신의(信義)를 강조하는 기본윤리입니다.

붕우유신은 “벗과 벗 사이에는 믿음(信)이 있어야 한다” 는 말로써 대인관계에서 믿음과 의리, 즉 **신의(信義)를 강조하는 기본윤리**입니다. 친구의 옛말이 붕우(朋友)입니다. 여기서 붕(朋)은 붕당(朋黨)처럼 뜻(志)으로 함께하는 벗을 말하고, 우(友)는 우정(友情)처럼 마음(情)으로 사귀는 벗을 말합니다. 그래서 붕우유신(朋友有信)이란 한 뜻으로 모였건 한 마음으로 사귀었건, **벗과 벗 사이에는 모름지기 신의(信義)로 맺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공자님께서도 정치의 원칙을 묻는 제자 자공(子貢)에게 “위정자나 백성들 사이에 ‘신의’ 가 없다면 정치나 백성도 존립할 수 없다” 고 하였습니다. 속담에 “**물이 아니면 건너지 말고, 인정이 아니면 사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귀어 믿음과 의리가 바탕이 되어야지 잇속을 따져 사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믿을 신(信)에서 사람 인(人)을 빼고 나면 말(言)뿐이기 때문입니다. 깊은 인정(人情)없이 이해득실 따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건너다니는 자는 붕(朋)도 우(友)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오로지 인맥의 징검다리로만 이용하여 언제든 지워버리고 또 지워질 수 있는 오다가다 아는 친구일 뿐입니다.

붕우유신의 주인공은 믿음과 의리를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벗(朋友)이란 말을 하기는 쉬워도 참된 벗을 얻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민족의 선각자 도산 안창호선생님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힘! 힘을 기르소서! 신성(神聖)한 단결로 신성한 단체를 만들기 위하여 신의와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신의(信義)는 서로 믿을 수 있고 의로움이 가득한 사이를 말합니다. 저마다 성실과 신의를 생명으로 삼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는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심지어 도산은 동지를 믿고 속는 한이 있더라도 공고한 단결을 위해서는 상호 신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붕우유신(朋友有信)의 주인공은 오로지 인륜(人倫)의 실천덕목(實踐德目)인 오륜(五倫)의 도리를 다하고 믿음과 의리(信義)를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붕우유신의 인간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것은 인생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인간관계의 지극한 도리는 인(仁)입니다. 어질 인(仁)의 의미는 ‘사람(人)은 홀로가 아니라 두(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질」 즉, 사랑과 자비로 베풀며 살아가는 모습’ 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붕우유신의 인간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것은 인생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의리(信義)가 인간사회에 확산될 때 불신의 풍조가 사라지고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사회, 살기 좋은 국가의 실현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글 / 곡성문화원장 고광운

우생마사(牛生馬死)

우리 한사람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보배요, 우리나라 전체입니다.



일에는 참음(인내)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옛글에 우생마사(牛生馬死)라는 말이 있습니다. 홍수에 소와 말이 함께 떠내려가는데 소(牛)는 살아남고 말(馬)은 떠밀려 내려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말(馬)에게는 힘이 더 세고, 재주도 더 있고, 더 재빠르기도 하는데 말(馬)은 홍수에 떠밀려 헤어지지 못하지만 더 느리고 더 우둔한 소(牛)는 살아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치를 살펴보면 우직한 소(牛)는 떠밀리어 가면서 천천히 갯 쪽으로 몸집을 돌리며 갯길을 만나 기어오르는데 말(馬)은 자기의 힘과 재주만을 믿고 홍수를 거슬러 나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지치고 떠밀려 내려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기의 재주에 의지하지 말라. 재주가 넘치고 머리가 좋다고 소문난 사람이 출세하는 확률이 훨씬 더 낮다’ 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재주만 믿고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끈기도 대개의 경우 머리 좋은 사람이 더 오래 참음(인내)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물을 마시려면 수도꼭지에서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을 마시려면 우물을 찾아야 했고, 물을 얻기 위해서는 우물을 팎어야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성공될 때까지는 끈기 있게 참으며 그 일을 해야만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적은 일도 소홀히 하면 큰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사람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보배요, 우리나라 전체입니다. 모든 것은 적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크게 됩니다. 큰 호수에 적은 마치 모래 한 알 정도의 구멍만 났다고 하더라도 그 호수는 무너져 큰 재앙을 가져다줍니다. 실제로 네델란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나라는 지형적으로 국토면적의 25%정도 육지가 바다보다 더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제방으로 둘러쌓아 네델란드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다를 막은 제방근처를 지나던 한 소년이 제방의 적은 구멍에서 물이 새어 육지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 주먹으로 그 구멍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본 지나가던 어른의 신고로 제방의 붕괴될 위기를 구했다” 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은 일에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을 구한다는 일은 인류 전체를 구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우리 인류 전체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자기 집안의 보물이요, 우리나라 전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족 전체요, 우리나라 전체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곡성의 보물이기도 합니다.

글 / 우암학원(옥과고등학교, 전남과학대학교, 남부대학교) 학원장 조용기 박사

2019 곡성군수 신년사

"군민 행복지수 1위 달성 최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모두의 희망을 가득 담은 2019년 기해년의 해가 상서로운 빛을 비추며 떠올랐습니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에도 교육, 일자리, 여가,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행복지수 전국 최고! 희망 곡성을 만들자'**는 슬로건을 걸고, 군민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곡성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 한치의 주저함 없이 달려가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 권역별 특성에 맞는 앵커(anchor)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곡성읍권은 '맛과 멋이 넘치는 감성과 문화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관광객 시가지 유입,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낙동원로와 중앙로 일대에 영화 콘셉트의 거리와 청년 창업공간, 스트리트 갤러리 조성, 주민주도형 민박과 맛집 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과 기차당뚝방마켓의 문화콘텐츠와 주말장터화, 공공임대주택 건립(150호)으로 활기 넘치는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옥과권은 '청년 인구 유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교두보' 로 삼겠습니다. 아름답드리나눔센터 문화광장 조성, 전통시장 정비, 보급자리 공공주택(120호) 착공, 사료용 곤충산업 육성(종자보급센터),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 연관기업을 유치해 민간 부문 일자리를 늘려가겠습니다. 석곡권은 자연과 로컬문화가 살아있는 문화관광벨트로 조성하겠습니다. 흑돼지특화단지 조성, 식도락이 결합된 6차산업 육성으로 곡성을 대표하는 먹거리 촌으로 만들겠습니다. 반구정-죽곡-암록 대항강 수변 문화생태탐방로 연결 등 생태체험 관광지화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둘째, 좋은 일자리**

가 있어도 좋은 교육이 없다면 사람들은 곡성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학교혁신 마을 교육, 곡성 꿈 놀자, 농촌유학, 미래교육협력센터 업무협약, 곡성미래교육재단 설립으로 누구나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소외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상담활동, 곡성읍·옥과 청소년문화의 집 복지프로그램 운영, 행복한 육아, 일자리, 주거 보급자리, 온종일 어린이돌봄시스템, 경력단절 여성 취업·창업 전문가격증 취득 지원, (구)오곡초등학교 복합문화공간 조성, 노인복합공간 '청춘센터' 준비 및 공립 치매 전담시설 확충, 노인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으로 소외와 차별 없는 문화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넷째, 도시민이 찾아오는 낭만과 힐링의 문화관광자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섬진강과 대항강 수변 레저문화관광벨트화(트레킹, 자전거, 래프팅 등), 동약산명품술길, 섬진강변 Book숲, 대항강변 인성원에 강·숲 이야기가 어우러진 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군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환경오염센터 개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200억), 침실습지 예코센터 건립(100억 원) 등 생태관광의 거점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및 친환경재해보험(100%), 농업인안전재해보험(90%) 지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목표액 증액(100억 원), 스마트팜 조성, '곡성형 시설하우스' 현대화, 축산시설의 현대화 및 무항생제 축산업 인증 지원, 토란 생산 및 새로운 가공상품 개발로 소비시장 확대, 대평리 일대 매통체험장과 포도촌 등 6차산업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공직문화와 사람중심의 편리하고 감동적인 행정을 실천하여, '군민행복지수 1위'의 목표를 향해 2019년을 채워가고자 합니다.**

2019년 새해 아침/ 곡성군수 유근기 인사 올림

2019 곡성군의의회 의장 신년사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곡성 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기해년(己亥年) 새해는 ‘황금 돼지’의 해입니다. 돼지는 예로부터 신성한 재물이자, 재산과 복의 근원으로 여겨졌습니다. 2019년 새해에는 군민 한 분 한 분이 더욱 복되고 행복으로 충만한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곡성군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변함없는 성원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교수신문은 지나온 한 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를 선정하여 논평하고 있습니다. 2018년 사자성어로는 짐은 무겁고 갈 길이 멀다는 ‘임중도원(任重道遠)’을 꼽았습니다. 남북 화해와 사회적 부조리를 고쳐나가는 것에 노력하였지만 경제의 개혁과 회복,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과 같이 시대적 과제가 산재한 시국으로 평가한 것이며, 이 역시 우리 곡성군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제8대 곡성군의의회는 군민 여러분들께서 주신 천금과 같이 귀하고 무거운 사명을 가슴에 품고 희망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보답하고자 우리 곡성군의의회 의원들은 소수자와 약자들을 살피기 위한 사회적 장치들을 점검하고, 잘못되거나 부당한 제도와 정책들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갈 길이 멍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의 성장 동력은 해가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고, 농촌의 정서와 살림은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은 그만두지 않음에 있다.’는 순자(荀子) 말씀처럼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고장,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합하며 우리 미래의 꿈을 키워갈 인재들이 뿌리내리고 일생의 업을 일구며 살아가는 곡성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곡성 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길에 군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희망찬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글 / 2019년 새해 아침 / 곡성군의의회 의장 정인균 인사 올림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택 곡성교육 2019. 설명회

‘포용·열정’ 미래 일구는 민주시민 육성 노력



전라남도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택)은 2019학년도 곡성교육의 비전과 목표를 학교에 안내하고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곡성교육 2019.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의 교육비전, 교육지표를 반영하고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색을 살려 ‘모두가 소중한 혁신 곡성교육’을 교육비전으로, ‘포용과 열정으로 미래를 일구는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목표로 설정했다. ‘곡성교육 2019’ 핵심내용은 ‘전남교육 2019’의 5대 시책을 중심으로 계획했다.

3대 역점과제로는 첫째, 학생회 구성으로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학교행사를 추진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함양을 위한 학생 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둘째, 혁신학교 문화 확산을 위해 전남혁신학교 교육지구 운영과 작은 학교에 희망을 만들고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곡성교육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셋째는 한 아이도 낙오되지 않도록 함께 성장하는 기초학력 신장을 역점으로 삼아 맞춤형 학력향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식기반사회에서 길러야 할 미래핵심역량 중 참여와 소통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21세기 시대에 무엇보다 필요한 능력으로 여겨 ‘1·2·3 내 생각 표현하기’를 특색과제로 선정해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종택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해 곡성교육공동체가 일심협력해 곡성교육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은 것은 교장 선생님들의 봉사적 리더십이 선생님의 열정을 이끌어 냈으며 곡성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공동체 중심의 자율적인 학교경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혁신 곡성교육 실현 위해 노력하자!!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택)은 관내 유·초·중·고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부모회장, 곡성군학부모대표자협의회 임원과 함께 곡성교육 공동체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019년 곡성교육 주요 사업에 대한 안내 및 초·중학교 통학구역 공동학구 확대 추진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곡성교육 네트워크 활성화와 학교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 자리에서 이종택 교육장은 “우리 아이들이 곡성의 꿈이요 희망”이라며 “이제는 온 마을과 학교가 나서야 하고, 학부모, 교직원 등 모두가 행복한 혁신곡성교육 실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글 / 곡성문화원 팀장 배숙영

곡성문화원 전통혼례 축복!

김명식과 양정인의 혼례식 새로운 시작!! 행복한 가정 축원드립니다



2018년 12월 22일 오전 11시 삼기초등학교 강당에서 곡성문화원(원장 고광운)의 주관으로 곡성군 삼기면 김명식(신랑)님과 양정인(신부)님의 전통 혼례식이 200여명의 면민과 군민의 축복속에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날 “새로운 시작!! 행복한 가정 축원드립니다”는 프랑카드를 걸고곡성문화원 조준원 사무국장의 집례 및 사회로 진행된 전통혼례식은 먼저 초례청으로 삼기풍물패 공연과 박채란 선생의 가야금병창과 함께 하객들의 박수갈채 속에 시작되었다. 양가 대표의 점축, 신랑입장과 함께 기러기 전달 및 신랑 북향 4배를 드리는 전안례가 있는 후 신부가 입장하여 신랑신부의 손을 씻는 의식인 정화 의식이 이어졌다. 신랑신부 맞절(신랑 2배, 신부는 4배)과 함께 합한주(청주와 탁주 교배)가 있는 후 윤남열 전 곡성향교 전교님의 고전문 낭독과 함께 신랑이 신부의 원삼을 벗겨내는 성혼의식, 기러기 가족의 따뜻하고 행복한 꿈을 상징하는 기러기 전달식이 있었다. 신랑신부의 축복을 비는 길놀이 말씀(축사)은 김일승 삼기면노인회장 겸 곡성군계이트볼협회장님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덕담과 함께 신랑신부 하객인사가 있었다. 삼기풍물단 풍물, 박채란 선생님 가야금병창, 전남숙 선생님 축가 가시면서 사랑 등 축하마당이 펼쳐진 가운데 닭 날리기, 성혼 행진을 끝으로 결혼식을 성대히 마쳤다.

글 / 곡성문화원 간사 이옥희



제10회 전남문화원의 날 기념식 성료

전남 문화원 회원 1천여 명 참석 열기



전남문화원연합회(회장 황호용) 주최, 목포문화원(원장 김정기)이 주관한 제 10회 전남 문화원의 날 기념식 행사가 전남 22개 시·군 문화원장을 비롯 회원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 12일(월) 오전 10시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성대히 열렸다. 목포시립무용단의 춤의 향연으로 시작한 축하공연은 젊은 국악인 이철홍의 민요 판소리, 목포시립무용단의 버꾸춤, 실력과 국악인 백현미의 국악가요와 남도민요, 남도문화활동네트워크 ‘소리터’의 진도북놀이 등 수준 높은 공연이 펼쳐져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해남고 김숙희 영어교사의 축시 낭송, 김정기 목포문화원장의 문화비전 선언문 낭독 및 인사, 황호용 전남문화원연합회장의 기념사, 김종식 목포시장의 환영사, 김태웅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의 격려사, 박병호 전남도행정부지사와 이용재 전남도의회의장, 김휴환 목포시의회의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날 진행된 우수 지방문화원 시상식에서 전라남도지사상에 곡성문화원(원장 고광운, 법인)과 진도문화원장 박장석(개인),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에 영광문화원(원장 김범무), 전라남도문화원연합회장상에 목포문화원(원장 김정기), 그리고 유공 지방문화원부원장, 이사, 사무국 직원 등 2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제30회 전남향토문화상은 김형만 고전연구가, 오길석 금실농원대표, 김재걸 전라좌도농악 전수자, 김집순 국악인, 박종호 예방진도신문편집국장 등이 수상했다. 제20회 전남향토문화연구 논문공모 수상자는 송호철 고흥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이건종 전남대학교 사학과 4학년, 정세훈 목포대학교대학원생에 대한 시상도 함께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목포를 찾은 전남 시·군 문화원 회원들은 목포시내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유달산과 목포대교, 세월호가 거처돼 있는 목포 신항 등을 둘러보며 하루 종일 남도문화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글 / 전라남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김순곤

곡성문화원 ‘2018년도 우수지방문화원 선정’

전라남도지사상 수상



곡성문화원(원장 고광운)이 지난 12일 ‘제 10회 전남문화원의 날’을 맞아 우수지방 문화원에 선정, 전라남도지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남문화원연합회에서 전라남도 22개시.군문화원을 대상으로 2017년도 지방문화원 사업실적 및 운영상태와 전남연합회 참여를 종합평가해 우리 곡성문화원이 최우수문화원으로 선정되어 전라남도지사상을 받는 영광을 차지했다.

곡성문화원은 2015~2017까지, 총 3년간에 걸쳐 ‘곡성문화콘텐츠 곡성&심청스토리 공감 행복누리사업’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창조지역 우수사례 20선에 선정되었다. 심청의 효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면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외에도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활용 사업, 과거급제자 행렬 및 심청 황후마마행차, 곡성군민 심청가부르기 경연대회, 제19회 효녀심청 유치부사생대회, 제19회 전국어린이예술공모전, 심청축제 심청자료관 전시, 곡성할머니인형극단, 여성극단 곡성마당극 심청전 공연, 현대판 소설 심청전·원홍장전 발간 등 심청축제를 비롯 보성성소리축제, 도서벽지 소외지역 유치원·초등학교를 찾아 다양한 공헌활동을 펼친 공로로 이 상을 받게 되었다.

고광운 곡성문화원장은 “전남지방문화원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유근기 곡성군수님과 담당 관계관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군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 향토문화의 전통과 창달에 공이 많은 인사들의 의욕을 고취 시키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전남문화원연합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 ‘30회 전남향토문화상’에는 곡성문화원 이사 김재걸(전라좌도농악전수자) 선생님이 수상했다.

글 / 곡성문화원 부원장 임채인

곡성문화원 김재걸 이사 ‘전남향토문화상’ 수상

전남 향토문화의 전통과 창달에 큰공 기여



전남 향토문화의 전통과 창달에 공이 많은 인사들의 의욕을 고취 시키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전남문화원연합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 ‘30회 전남향토문화상’에는 곡성문화원 이사 김재걸(전라좌도농악전수자) 선생님이 수상했다.

김재걸 선생은 1970년 흥산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아 2009년 곡성중앙초등학교를 끝으로 정년퇴임을 하기 까지 고향인 곡성에서 40년간 후학들을 가르치며 재직하였다. 전라좌도농악 전수자인 김재걸 선생은 1997년 제25회 남도문화제에 참가하여 우수상, 최우수상(26회)을 수상하였으며, 제40회 한국예술경연대회 전라남도대표로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곡성도상초(전라남도지정 연구학교, 좌도농악지도), 봉정초·죽곡초·곡성서초·오곡초(특활경연대회 풍물·사물놀이 최우수상)에서 많은 상을 독차지했다. 특히 2001년 전주대사습 전국학생농악경연대회에서 참박상, 춘향제전에서도 특별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전라남도곡성교육지원청 실천중심장학자료 집필위원으로 활동하여 많은 향토교육자료를 발간·보급하는데 앞장섰다. 이러한 공로로 곡성교육상을 비롯 곡성군민의 상,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글 / 곡성문화원 편집인 빙신호

전남문화원연합회,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

“동네방네 문화로 청춘” 공연이 성대히 펼쳐짐



2018년 10월 18일 곡성레저문화센터 앞 광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 전남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2018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동네방네 문화로 청춘” 공연이 성대하게 펼쳐졌다. “동네방네 문화로 청춘”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중 하나로써 마을에서 함께 즐기는 어르신 문화예술 동아리 축제이다. 10월 18일 오후 1시부터 곡성 레저문화센터 야외광장에서 곡성문화원 할머니극단 “곡성”의 공연을 시작으로, 광양 시니어 기악단 “아빠의 청춘”, 화순 한춤 동아리의 “선비춤”, “입춤”, 화순 화정 다문화 동아리에서 “하늘가락과 윗샤코이” 공연이 곡성문화원 15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신나게 어우러져 여흥을 즐겼다. 동시에 “제2의 청춘 봄날” 동아리에서 가죽 공예를, 구례 한지공예 동아리에서 ‘수작수작 한지공예’ 전시체험도 함께 이루어져 문화체험 한마당 축제가 되었다.

글·사진 / 곡성문화원 간사 이옥희

TV속 예능미션을 직접 체험한다!!



곡성향교 워킹맨 진행순서

- 1 명륜당에서 향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라!
- 2 시크릿 네임을 찾아서 과거에 응시하라
- 3-1 전통놀이를 빠른시간안에 끝마쳐라!
- 3-2 전통놀이 달팽이 집을 지켜라
- 4 상대방 등에 붙은 이름표를 제거하라!

과거급제 행렬 곡성향교 다도예절

과거급제 행렬

과거시행을 통해 급제자와 참가자들이 곡성읍내에서 과거급제 행렬, 상소문낭독 등의 행사를 진행합니다.

- 기간 | 2019년 5월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장소 | 곡성군 곡성읍내 일원
- 시간 | 2시간 내외
- 대상 | 초·중·고 재학생 및 일반인 등 누구나
- 주관 | 곡성문화원 · 곡성향교 · 전라남도곡성교육지원청 · 곡성경찰서

곡성향교 다도예절

다도 예절교실은 전통예절 및 문화를 익혀 올바른 행동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공수법, 다례 체험, 다도예절 등을 진행합니다.

- 기간 | 2019년 3월 ~ 11월
- 장소 | 곡성향교
- 시간 | 2시간 내외
- 대상 | 초·중·고 재학생 및 일반인 등 누구나
- 주관 | 곡성문화원 · 곡성향교 · 전라남도곡성교육지원청 · 곡성경찰서

곡성군 인문학 산책 예술가와의 만남

곡성군 인문학 산책 (문화답사)

곡성군 삼진강기차마을, 장미공원, 전통시장, 덕양서원, 향교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문화유적 답사

곡성의 추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삼진강 기차마을에서 구 곡성역과 증기기관차들을 살펴보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패달을 밟으며 레일바이크를 타고 기차마을을 둘러 봅니다.

기차마을 단지내에 위치한 장미공원은 40,000㎡의 부지에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우수한 장미품종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삼진강길을 따라 삼진강에 대해 알아보고 전통시장(5일장 3일, 8일)에 들러 곡성 산지에서 수확되는 각종 산나물, 버섯류, 과일, 채소 등을 살펴봅니다.

- 기간 | 2019년 3월 ~ 11월
- 장소 | 곡성군 일원
- 시간 | 2시간 내외
- 대상 | 초·중·고 재학생 및 일반인 등 누구나
- 주관 | 곡성문화원 · 전라남도곡성교육지원청

예술가와의 만남

예술가와의 만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와의 만남을 통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작품을 쉽게 이해하고 소통합니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이란?

향교와 서원은 조선시대에 지방에 세워진 학교이자 한국 유교문화를 대표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문화재 활용 사업'입니다. 향교와 서원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현대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가 발전하며 크게는 지역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만들어 졌습니다.

2019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 기간 : 2019년 3월 ~ 11월
- 장소 : 곡성군 (곡성향교, 덕양서원, 옥과향교 등)
- 대상 : 유·초·중·고 재학생 및 일반인 등
- 주요 내용 : 곡성향교 워킹맨, 곡성 인문학산책, 예술가와의 만남, 과거급제 행렬
- 주최 : 곡성문화원
- 주관 : 곡성문화원, 전라남도곡성교육지원청
- 후원 : 문화재청, 전라남도

곡성문화원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5 (곡성문화센터 3층)
전화 : 061_362_0890, 팩스 : 061_363_7300



제19회 효녀심청 전국어린이 예술공모전 글짓기 부문(대상)

경주 유림초등학교 1학년 8반 한소정



한상우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한상우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저를 '똥강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저는 '똥'이 들어가서 똥강생이라고 부르는게 싫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께 "똥강생이가 뭐예요! 하지마세요!"하고 짜증을 많이 냈어요.
그럴때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더 놀려서 진짜진짜 많이 울었어요.
어느날 할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난 다음에는 퇴원을 해도 자꾸 기운이 없으시고
이젠 공놀이랑 캐치볼도 조금만 하면 누워야겠다고 하세요. 많이 힘드신가 봐요.
빨리약도 많이 먹고 힘을내서 옛날처럼 똥강생이라고 많이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불러도 이젠 안울꺼예요. 우리 할아버지 힘내세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제19회 효녀심청 전국 어린이 예술 공모전> 글짓기부문 심사평

핵가족 시대와 개인주의가 더 심화되어 마침내 혼자 살고 혼자 먹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시대가 도래 했다. 이는 전통적인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달라진 형태이다. 이와 함께 효에 대한 인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요즘이다. 한 아이의 작품 중에 '효' 라는 것이 젊은 자식은 늙은 부모를 업고 가는 것이라는데 왜 그래야 하나고 묻고 있었다. 어른들이 '효' 를 너무 무겁게 가르친 것은 아닌지, 혹은 너무 거창하게 들려준 어가에 무거운 짐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한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대다수의 작품 속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에게 무엇을 사드린 다든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든지, 안마를 해드리겠다든지, 무엇을 해드리겠다는 내용을 쓴 글보다 마음을 알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효' 라는 것을 인지한 작품들이 많다는 점이다. '효' 라는 막연한 사안을 일상으로 끌어와서 글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주제가 '효' 인 만큼 문장적인 기술보다는 진솔한 마음과 개성 있는 표현을 쓴 작품에 편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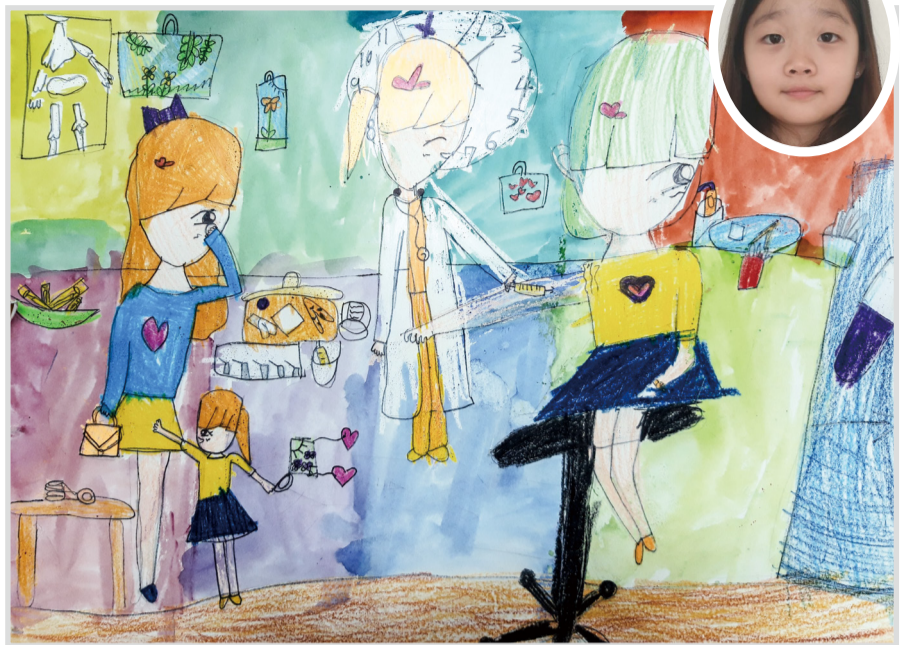
대상 작품으로 가려 뽑은 <한상우 할아버지>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작품이다. 할아버지가 어린 손녀에게 쓰는 가장 정다운 부름 '우리 똥강생이' 라는 말이 손녀는 듣기 싫어서 울었다. 하지만 병으로 입원한 후 같이 즐겨하던 공놀이와 캐치볼도 조금만 하고 나면 힘들어서 누워야겠다고 하는 할아버지께 '똥강생' 이라고 많이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할아버지의 회복을 기도하는 마음을 초등학교 1학년답게 썼다. 감동이다. 금상에 올린 <두더지 엄마>는 솔직하다. 이십년 동안 지하철을 타고 직장에 다니는 엄마를 '두더지엄마' 라고 표현했다. 어느 새벽 어둠속에서 홀로 기원하고 있는 엄마 모습을 발견한 후 엄마에게도 휴식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철없는 동생에게 의젓하게 대하는 형의 모습을 눈에 보이듯 선하게 그렸다. 은상으로 올린 <지키지 못한 약속>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앓다가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야기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금방 발떡 일어나실 것 같아 실감이 나지 않은 장면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건강하게 퇴원 후 집으로 놀러오시기로 약속한 할아버지께 지키지 못한 약속을 대신 해서 할머니를 자주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의지가 엮보인다.

이 외에도 입선에 오른 많은 작품들에서 '효' 에 대한 따뜻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마음을 알아주는 것,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효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 작품이 선에 들지 않았더라도 이번 기회에 '효' 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2018.11 심사위원 백시종 · 조숙(글) · 최창근

제19회 효녀심청 전국어린이 예술공모전 그림 부문(대상)

충북 죽리초등학교 1학년 1반 이수예



<제19회 효녀심청 전국 어린이 예술 공모전> 그림부문 심사평

어린이들의 그림을 따라가 보는 재미는 때 묻지 않은 순수한 행위를 들여다보는 데 있다. 그러한 순수함이란 왜 어린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는가? 라는 목표이기도 한 것인데, 어린이의 성장요소의 배양이라는 면에서 절대적 가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리기의 순수 행위란 어떠한 생각의 제약도 없이 한없이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자칫 어른들의 그리기 지도 안에서 지나친 관심은 어린이들의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단절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최초의 생각의 문을 열어주고 나면 어른들은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따라가도록 방목해 두어야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야기의 주제에 맞는 몇 개의 패턴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린이들 앞에 제시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결국 어린이들의 그림을 망치게 하는 데는 이러한 어른들의 무책임한 간섭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할 것이다.

비바람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란 나무가 가장 건강한 법이다. 2018. 11. 심사위원 배동환 김영자 Lisa Ann Bai



登儒達山 등유달산

谷郡會員 鎭達山(곡군회원 유달산) 곡성문화원 회원들 유달산 오니
登臨此日 不勝情(등림차일 불승정) 이날 오르니 아름다운 정 이기지 못하네

人稱三鶴 銀波舞(인칭삼학 은파무) 사람들 삼학도라 은파도 춤추고
天惠榮山 錦水耕(천혜영산 금수경) 천혜의 영산강 비단 물결 가네

憶昔倭侵 忠武起(억석왜침 충무기) 옛날 왜침 생각하니 이순신장군 일어나고
築斯露積 敵兵驚(축스노적 적병경) 노적봉 여기에 쌓으니 적병이 놀랐네

只今風浪 猶難定(지금풍랑 유난정) 지금의 물결 안정하기 어렵고
和議頻頻 待世明(화의빈빈 대세명) 화의 자주해서 세상 밝기 기다리네

한시 / 곡성문화원 회원, 국사편찬위원회자료조사위원, 오봉 梧鳳 정득채 鄭得采

목포·해남 문화유적 답사 문화는 삶을 담은 그릇이다.



우리 곡성문화원은 문화시대의 행복한 주역이 되고자 매년 봄·가을 농한기를 택하여 전국 각지의 소중한 문화유적지와 아름다운 관광명소를 찾아 나누며 즐기는 문화체험 나들이를 나신다. 2018 무술년에도 10월 26~27(1박2일)일, 100여명의 회원들이 그 옛날 비록 가난했지만 자연을 사랑하고 지고지순 했던 우리 선현들의 자취를 그려보며 목포·해남지역 문화유적답사 길에 올랐다.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평화와 민주주의의 영원한 불꽃! 김대중 선생

우리곡성문화원 문화유적답사 일행은 곡성레저문화센터에서 9시에 출발하여 약 1시간 30여 분 달려 10시 30분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는 목포 삼학도에 도착했다. 한반도 및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 관계의 발전, 세계 평화에 헌신한 공로로 2000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하니 웬지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이 기념관은 평화의 불꽃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애를 통해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김대중 정신을 공유할 수 있는 기념관이다.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노벨상 수상의 꿈과 포부를 심어주고, 체험적 역사교육의 장을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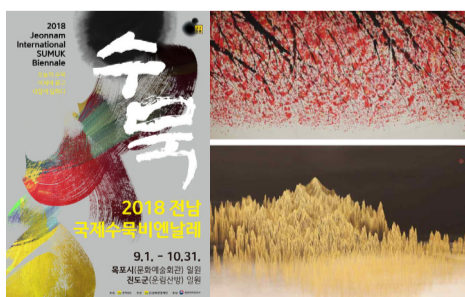
세월호

2014년 4월 16일, 인천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급 변침을 하며 침몰했다. 탑승자는 제주도 수하여행을 떠나는 경기도 안산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을 포함해 교사14명, 인솔자 1명, 일반탑승객 74명, 화물기사 33명, 승무원 29명 등 모두 476명이었다. 안타깝게도 그 봄에 떠난 304인의 영령을 애도하면서 희생자 분들 모두 평안하게 명면하시길 눈물 속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를 기원했다.



갯바위 문화거리 수목비엔날레 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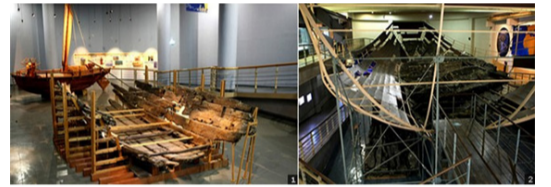
세 마리 학의 섬이란 뜻의 삼학도 유달산 식당에서 갈비탕 진 맛으로 담소를 나누며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2018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관을 관람했다. 우리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남종화의 화맥이 시작된 곳이자 수목화의 전통을 가장 잘 지켜온 고장이다. 공재 윤두서, 소치 허련, 남농 허견 등 수목화 거장들의 발자취가 곳곳에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이런 역사·문화적 기반을 바탕으로 수목화를 널리 알리고, 세계의 문화콘텐츠로 키우고자 하는 취지로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를 개최하게 된 것이



다. 전시내용은 필묵을 중심으로 한 전통수묵, 수묵의 새로운 해석에 의한 현대 수묵, 미디어 및 설치미술 등 새로운 수묵표현 작품, 세계 각국 주요 수목화가 250여명의 전시된 작품을 감상했다.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바닷속 유물 통해 해양교류 역사 한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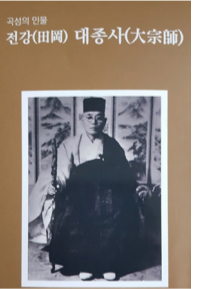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해양유물전시관의 제 1전시실은 '해양교류실', 제 2전시실은 '신안선실'로 수중 발굴된 자료를 담아 선사부터 조선시대까지 해양교류의 역사와 의미, 해양문화유산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문화재가 전시되어 있었다. 해양교류실은 수중에서 발굴된 600여 점의 바닷속 문화재를 통해 우리나라 해양교류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다.



목포는 남도의 젓줄 영산강이 흘러흘러 김푸른 서해와 맞닿는 유서 깊은 항구도시로 남도 예향의 본고장이다. 이곳 갯바위 문화거리 주변에서 목포자연사박물관과 남농 허견 화백의 예술혼이 가득한 남농기념관과 향토문화관은 각종 박제와 수석, 산호, 조개, 세계 화폐 및 각종 예술 작품 등 볼거리가 많은 곳이다. 우리 일행은 유달산 노적봉 예술공원을 둘러보 북향횃집에서 도란도란 속삭이며 저녁식사를 했다. 숙소 부근 노을공원에서 해양음악 분수쇼를 개인별로 자유롭게 감상하며 하루의 휴식을 취했다.

해남 대흥사 곡성의 인물 전강(田岡) 대종사(大宗師)님의 얼이 담긴 유서 깊은 곳

둘째 날은 7시 30분, 목포 신대흥정에서 조식을 한 후 9시에 탑승하여 1시간 여 달려 곡성의 인물 전강(田岡) 대종사(大宗師)님의 얼이 담긴 해남 대흥사에 도착했다. 해남 대흥사는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의 두륜산 도립공원 내에 있는 절이며, 대둔사(大菴寺)라고도 한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2교구 본사인 대흥사(대둔사)는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西山大師)가 거느린 승군(僧軍)의 총본영이 있던 곳으로 유명하다. 서산대사는 삼재가 들어오지 않아 만세토록 파괴됨이 없는 곳이라고 하였다. 그래서인지 6.25전쟁 중에 해남이 북한군에게 점령당했음에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2018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해남 대흥사 성보박물관(聖寶博物館)에는 우리고장 입면 대장리 출신 전강(田岡) 대종사(大宗師) 스님의 존영(尊影)·진영(眞影)이 전시되어 있다. 자주 찾아간 대흥사였지만 이번 문화유적 답사를 가게 된 것은 1995년 곡성문화원이 발행한 곡성의 인물 『전강(田岡) 대종사(大宗師) 스님』의 책을 재발행(2018)하여 해남 대흥사에 전해 주고자 했다. 이 책을 통해 국가가 외세에 주권을 잃은 수난시대에 일체중생의 교화에 힘쓴 시대의 스승이요, 한국 불교의 수도승이었던 전강(田岡) 스님의 가르침이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 화두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한오백년식당에서 중식을 했다. 돌아오는 길목에서 질 좋은 전통 막걸리로 유명한 해창주조장에 들려 한 두병씩 사들고 여흥을 누렸다. 시간 관계로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과 땅굴순례문학관을 옆에 두고 문화유적답사를 마감했다.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며 즐기는 시간은

힘이 생긴대! 희망찬 미래가 보인다! 장수고를 곡성이 자랑스럽다.

목포와 해남의 문화유적지를 돌아보고 우리 일행은 숨어있는 곡성의 소중한 무형·유형의 문화유산을 발굴·육성하고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힘써 지역문화 발전의 주역이 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해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문화유적답사에 참여해 주신 80~90대 문화가족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며 즐기는 시간은 힘이 생긴다! 희망찬 미래가 보인다! 장수고를 곡성이 자랑스럽다.



제4회 「곡성효문화상」 후보자 공모

곡성문화원에서 곡성군 경로효친의 실천과 문화예술교육에 모범이 되는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제4회 「곡성효문화상」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추천대상은 효행부문, 사회복지부문, 문화예술부문, 교육부문 등 4개 분야로 군민의 귀감이 되는 곡성군민 또는 곡성을 연고로 5년 이상 활동한 단체 및 개인입니다.

1. 추천부문

부문	인원	추천대상
효행부문	각 부문별 1명	경로효친 사상이 투철하며 우리 민족 전통의 “효” 정신을 바르게 실천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
사회복지부문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군민들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 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 및 단체
문화예술부문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앞장서며 군민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 및 단체
교육부문		투철한 교육관을 가지고 곡성 교육 발전에 앞장서며 후학 양성을 위한 노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 및 단체

2. 시상내용

- 각 부문별 선정된 분에게는 상장과 상패 수여

3. 추천서 접수 및 선정

가. 후보자 추천자격

- 각 부문 : 곡성군 기관 · 사회단체 또는 곡성문화원 회원 추천

나. 접수기간 : 2019년 2월 7일(목) ~ 2월 28일(목)

다. 접수처 : 곡성문화원

전남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5 (곡성문화센터 3층)

☎(061) 362-0890 / 팩스(061) 363-7300

이메일 gs0890@kccf.or.kr

4. 제출서류

가. 추천서, 공적조서 및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증빙자료

나. 추천서는 곡성문화원 홈페이지(<http://www.gs-culture.or.kr>)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5. 발표

가. 2019년 3월 5일(화) 곡성문화원홈페이지 (<http://www.gs-culture.or.kr>)

발표 및 수상자에게 개별통보

나. 2019년 3월 중순 곡성문화원 총회시 시상

곡성문화원

곡성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거 지방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곡성군민들의 향토문화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증진시키며 군민의 문화예술적 감성을 개발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의 사업

1.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 보급 · 보존 ·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 · 연구 및 사료의 수집 · 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 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 · 외 교류
6.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7.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곡성문화원 문화예술 진흥 주요 추진 사업

문화행사의 개최

- 저명 문화예술인 초청 강연회
- 초 · 중 · 고 학생 진로 멘토와의 만남
- 효녀심청 유치부 사생대회
- 효녀심청 전국 어린이 예술공모전
- 우리 가락 판소리 심청가 한 대목 부르기 대회
- 곡성효문화상 공모
- 청소년 향토문화 강연회
- 곡성 자연환경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 곡성사랑체험활동
- 곡성문화예술단과 함께하는 한가위 노래자랑

곡성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 우리가락 판소리 심청가 배우기 판소리 교실
- 학교 문화예술교육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자율영 독서교실
- 청소년을 위한 곡성 바로 알기 인문학 프로그램
- 어르신 문화학교 제 2의 푸르름 청춘예찬 공예
- 찾아가는 향토사 교육
- 골짜골짜 문화재 찾기 프로그램 운영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 보존 및 보급

- 지역 향토자료 조사 및 역사마을 만들기
- 효경친찬생활문화 운동 실천 사례 발굴
- 곡성문화 소식지 발간
- 내 고장 인물 및 유적지 안내도 제작 · 홍보
- 향토사료 발간
- 곡성 & 심청스토리 공감 자료관 조성 사업
- 나라사랑 민족사랑 호국보훈 지킴이
- 골짜나라 문화재 지킴이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 교육 활동

- 향토문화유적지 순례
- 가훈 및 휘호 써주기
- 고대인물 알리기 및 서화 전시회
- 살아 숨 쉬는 학교 ·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 · 외 교류

- 주민극단 마당극 심청전 여성극단 운영
-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 협력사업
- 애 가고 싶은 곡성 우리 모두 홍보대사
- 현충 시설 및 문화유적 탐방 체험

